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 데이터·통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데이터와 통계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의 필수 요소” 양국 정상 한목소리
- 빅데이터·AI 활용 모범사례 공유로 양국 데이터 가치 제고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2026년 4월 1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통계청과 ‘데이터 및 통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전면 개정·체결하고 문건을 교환하였다.

국가데이터처와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지난 2011년 체결된 기존 통계 협력 MOU를 기반으로 하되, 이번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데이터 환경 속에서 전통적 통계 협력을 넘어 국가 통계 시스템의 현대화와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주요 협력의 범위는 △행정자료,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적용 등 데이터 및 통계 생산 혁신, △경제·인구·사회·환경 분야의 공식 통계 발전 강화, △양자회의의 정례화를 통한 최신 발전 동향 상호 교환 등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시의성과 정확성을 갖춘 통계 데이터가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두 정상 간의 만남을 계기로 체결된 금번 업무협약은 국가 경영의 핵심 기반을 고도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양국은 이번 데이터·통계 분야 협력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윤영 (042-481-2095)
		담당자	사무관	정영심 (042-481-2098)